데스크 시각

모두를 위한 공항 해법

윤 현 석
경제·행정 부국장

올 초 지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일본에 가기로 하고 무안국제공항 항공편을 알아봤다. 하지만 비정기인데다, 노선도 한 개에 불과해 시간을 맞출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부산 김해로 갔다. 1시간 남짓 나고야행 비행기를 타는데, 새벽에 일어나 3시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가는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상당수는 외국에 가려면 시간·비용을 들여 김해, 인천으로 가야 한다. 한 달여 전 뒤늦게 여름휴가를 제주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무안국제공항~제주 티켓을 간신히 구해 다녀왔다. 집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광주 민간공항이 이전하더라도 시민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지척에 국제공항 두고 김해·인천으로

인천·김해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관광을 위해 광주·전남까지 찾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 물류 서비스의 영역은 계속 확장중이지만, 광주·전남은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 기업들의 운송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항공정비산업, 항공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역시 커나갈 수 없다.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과 지역기업들의 몫이다. 그 이유는 모두 알고 있다.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을 마치 '남의 자식' 보듯 하면서 시·도의 공항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광주시와 전남도 간 공항 갈등을 목도하면서 무엇보다 광주시의 '소탐대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광주공항은 오로지 제주에 가서 소비하려는 일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다. 반면 무안국제공항이 제 자리를 잡는다면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편의성·경제성 등을 높이고, 이 지역을 찾아 소비하려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광주 민간공항을 계속 고집한다면 광주·전남의 협력과 상생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광주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통합됐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당한 무리를 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역까지 집어넣었다. 그만큼 전남도에게는 절박한 과제인데도 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꿈꾸고 있는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과 인공지능·미래차 실증중심도시, 전남도가 바라는 외국인 관광객 및 자본 유치,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북적이는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세계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은 17년간 계속 이어져야 했었다.

광주시는 심지어 군공항을 받는 조건으로 민간공항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의 소음 유발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과 연계하면서 오히려 갈등·마찰은 커지고 무안군의 반발은 더 확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해안가에 좀 더 넓은 면적의 군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가 대폭 줄고, 영향을 받는 주민 수도 급감할 것이다. 1조원의 지원금이 무안 발전에 보탬이 될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무안군민이 광주시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알리고, 설득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부터

광주 군·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광주시는 장기적이며 보다 넓은 안목에서 민간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이어 전남도, 무안군과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포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이 광주가 세계로 향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군미래발전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항공정비(MRO)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무안군이 수긍할 수 있는 제안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군공항 이전이라는 광주의 숙원이 해결됨과 동시에 광주·전남·무안은 지역을 '퀀텀 점프' 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7년간 시도민에게 보여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갈등이 앞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면 지역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은펜칼럼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고 성 혁
시인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그가 떠난 지 벌써 두 달, 하지만 낮고 가만한 그의 노래가 가슴에 남아 삶에 대한 공부를 멈출 수 없다. 지금껏 뒷것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남아 있었다니. 농부였고 광부였고 피혁공장의 새벽(朝學) 선생이었던 그. 수많은 배우와 가수를 배출했던 사람.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쟁이였다. 낮고 더 낮아져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자 했던 쟁이. 이제 그는 갔고 세상은 그의 연민과 슬픔을 성찰하며 두리번거린다.

헐벗은 내 몸이 뒤안에서 떠는 것은/ 사랑과 미움과 배움에 참을/ 너로부터 가르쳐 받지 못한 탓이나/ 하여 나는 바람 부는 처음을 알고파서/ 두리번거린다 말없이 찾아온 친구 곁에서/ 교정 뒤안의 황무지에서. 그의 노래 '두리번거린다'는 혼란스런 세상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속삭인다. 낮고 느리게. 흐르고 흘러 연민에 다다른 우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마침내 그들의 슬픔을 끌어안는다…. 두리번거린다니. 우리는 늘 두리번거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저며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올림픽 노메달 선수들의 아픔을 헤아려 만들었다는 노래 '봉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둥둥, 북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위로의 마음에 가슴이 사무친다.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랴.

그는 낮고 더 낮고자 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인터뷰를 거절하고, 인생을 바꾼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 놓고도 "묵은 겨울 내복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었다. 딱 한 번 소극장 개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음반이라는 걸 내고, 자신이 만든 그 소극장 '학전'에서 젊은 배우들보다도 월급을 적게 가져갔다는 사람.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연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앞것', 그들의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을 '뒷것'이라고 칭한 김민기. 낮음은 그의 신념이었을 것이다. 아름답다. 겸손한 사람 김민기. 그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일관된 사람이었다. 청춘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법.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했다. 얽매이지 않기 위해 도움을 거절하고, 어떤 편 가르기도 하지 않았다. 그의 유지를 받든 유족들도 모든 조의금을 돌려보냈다. 그랬으니 그와의 이별 길, 그리 많은 사람이 눈물로 그를 배웅했을 것이다. SBS 다큐멘타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에 배우 황정민과 설경구, 가수 강산에 등 무려 18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 모두 김민기를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한참 얻어맞다 보니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그만큼 고통도 가물가물해지고요. 그때 때리는 사람이 슬로우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득 때리는 사람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고생일까? 나를 때리는 일로 월급을 받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극단의 상황에서도 상대를 연민한 김민기. 그게 가능한 일이었던가. 그 말을 하는 순간의 그의 어린애 같은 표정. 그 표정을 보면서 왜 가슴이 그토록 저렸을까. 그의 모든 노래에 연민이 담긴 건 그의 연민이 태생적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삶의 본질은 연민 혹은 슬픔일 터이니 그래서 그의 노래가 우리 가슴을 울렸을 것이다.

김민기에 대해 '존재의 본질에서 길어내는 슬픔은 고즈넉한 슬픔이다. 그것은 내면의 우울을 찬찬히 응시해야 얻을 수 있는 성찰적 슬픔이기에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 기지촌 여성, 광부, 아이들에 닿았을 것'이라는 장제혁의 말은 그래서 명백하다. 분노와 절규가 없는 김민기의 노래가 광장을 뒤덮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일면식도 없건만 그가 없는 세상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막걸리 기타로나마 G, Am, Em, A7 코드를 잡고 익히던 상록수, 막다른 골목에서 목 놓아 불렀던 아침이슬…. TV 속, 통곡하는 장현성과 눈물을 닦는 설경구, 그 위를 떠다니는 아름다운 색소폰 소리와 수많은 이들의 흐느낌. 당신은 영원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앞만 보고 허위허위 앞것으로 살아왔건만 흰 머리 구부정한 허리가 되어 세상의 뒤편에 무르춤하게 선 지금에야 어떻게 당신을 닮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극단의 세상을 생각한다. 아, 민기 형, 나의 광휘여, 부디 평안하시길.

기 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들

박 안 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
경제학박사

독일의 안톤 시나크는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초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 모퉁이에서 오색영롱한 깃털의 작은 새의 사체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추수한 텅 빈 가을 들녘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다.

호남(湖南)이라는 지명은 백제시대 축조된 전북 김제 벽골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졌다. 아마도 그 시절부터 호남은 저수지를 축조할 정도로 벼 재배의 곡창지대였나 보다.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굶주린 백성의 배를 채우는 그 사명을 충실히 했고 임진왜란 시 7년간의 길고 긴 전쟁에는 군량미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 호남의 황금빛 들녘에서 벼 수확을 앞둔 농업인들은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생산된 쌀값이 계속 하락해 단경기임에도 17만7000원(80㎏)까지 폭락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정치권과 정부의 양곡법 개정이나 쌀값 20만 원 보장제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부질없는 일일 듯싶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54.6㎏를 소비한 반면 수입의존도 높은 육류의 경우 60.6㎏를 소비, 식생활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더욱이 쌀과 함께 우리 농업 양대산맥인 한우의 경우 2년 6개월 사육 출하시 마리당 143만 원 남짓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어 농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이 무려 4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결혼을 미루게 되어 0.72명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대기업에서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고 더욱이 50대 이상 직장인들은 퇴직을 꺼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렇다 할 대기업 하나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역외유출을 더 이상 멈추기 위해 혁신도시 산하 기관 이전과 함께 채용권고 비율을 좀 더 상향시켰으면 좋겠고 전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하루 속히 확정되길 기대해 본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는 굳게 닫혀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부양으로 통일을 염원한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아직은 민생과 협치보다는 막말, 탄핵, 특검 등으로 국민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름다운 가을날에 쌀값과 한우 가격 하락, 쉬고 있는 청년, 의료대란, 갈등의 정치가 아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길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구급대원에게 환자 이송할 병원 선정 권한을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의료인뿐만 아니라 119구급대원들도 정신적·신체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중상환자와 응급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만, 환자 이송시마다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탓에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올 들어 한번이라도 119에 구조나 구급전화를 한 사람들이라면 구급대원들이 극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실제 며칠전 광주시 북구 문화동에 사는 80대 노인이 쓰러져 가족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차는 10분이 채 못돼 도착했다. 3인 1조였던 대원들은 이동 중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을 물었다고 한다. 답변을 들은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전남대병원과 광주병원, 현대병원 등 2~3차 병원 4곳에 전화를 걸어 환자를 맡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면서 신고자 아파트에 도착한 것이다. 단 1초의 시간도 아낀 구급대원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송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환자 상태를 병원에 설명하고 사정에 사정을 거듭해 이송을 완료했다.

응급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들과 병원 이송을 재촉하며 울부짖는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 광주·전남 지역 119구급대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날을 보내고 있다. 견디다 못한 광주·전남 소방서들이 '119구급대 및 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률을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애초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볼 수 있는 구급대원들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병원이 직접 환자 수용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해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양성화되는 광주공원 '포차 거리' 명물로

광주시가 광주공원 포장마차(포차) 거리 앞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1993년 조성 이후 2009년부터 남구가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31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광주공원 포차 거리 공영주차장은 모두 49면으로 광주시는 폐쇄를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용객들은 주로 광주공원 포차와 광주향교, 광주시민회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방문객들로 광주시가 인근 주차장으로 분산 유도하기로 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쇄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금남로 5·18민주광장처럼 '차 없는 광장'으로 조성한다. 광장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해 희경루,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공원, 광주천 등지 이용객들의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주차장 폐쇄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광주공원 포차 거리 양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공원 포차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광주를 대표하는 명물이지만 불법 영업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장년층에겐 추억의 장소이자 젊은층에게도 핫플로 인기를 누리는 현실을 감안해 광주시가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왕에 포차 거리를 양성화하기로 한 만큼 합법적인 영업 속에 광주의 명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포차 거리에 무질서한 이미지를 제공해 온 공영주차장 폐쇄는 잘한 결정이다. 포차 거리 앞 차 없는 광장에서 디제잉과 힙합, 스트릿댄스가 열린다면 이곳 일대가 청춘의 거리로 탈바꿈 할 것이다. 다행히 상인들도 광주시의 조치에 찬성한다고 하니 서울의 '거리 허가제' 처럼 광주의 포장마차 양성화 성공 모델이 되길 바란다.

無等鼓

에듀 푸어

"고3 아이들 학원은 언제까지 다니나요" "중2 아이들은 수학 영어 선행 어디까지 배우고 있을까요" "주말마다 학원 테스트·상담을 다니는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인강 vs 학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자녀들의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 모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골 키워드는 역시 '학원' '사교육'에 관한 이야기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은 필수가 되어버렸고,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걸 알면서도 투자해야하는 사교육을 언제까지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수년째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 방안 없이 질문과 공감만 반복될 뿐이다.

'에듀 푸어'라는 말이 있다. '부채가 있으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뜻하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집은 있지만 담보 대출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서 유래했다.

요즘 부쩍 이 단어에 꽂혀 있다. '나는 과연 에듀 푸어 인가' 묻고 또 묻는다. 한 과목에 학원을 두 개씩 보내거나, 하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 사교육에 등 떠미는 극성 부모는 분명 아니지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감당하기엔 역시 벅차다. 같은 시대를 사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라면 다들 공감하리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이었다. 3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초·중·고교 평균치 일 뿐 고등학생들의 학원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교육비 부담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오늘(25일)은 수능 D-50일이다. 대학입시 하나만을 위해 달려온 12년의 고생이 마무리되는 날도 이제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에듀 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그동안 애써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보라 응원을 해주고 싶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